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 8. 23. (금)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서 동 학 의원 등 31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19년 8월 13일

○ 회부일자: 2019년 8월 14일

3. 제정이유

-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을 자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을 통해 성장한 일본 전범기업들이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전범기업을 비호하며 우리나라에 경제전쟁 포고를 함에 있어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일본 전범기업 생산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4. 주요내용

-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조례의 적용대상 기관 및 금액(안 제3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및 제품 구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5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 문화 조성 노력(안 제6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어,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 의식에 이바지하고자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2조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적용 금액을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하지 않도록 노력 하게 하였는데,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각급학교에서 다수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범기업 생산 제품인 디지털 카메라와 부속품(렌즈, 플래시 등)의 경우 2019. 8. 19.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6개 회사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현미경의 경우 국내 12개 업체 427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어 전범기업 제품 대신 다른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범기업 제품 현황

구분	디지털 카메라 류	현미경 류	기타	계
보유량	308점	272점	98점	678점

- 1)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 포함
- 2) 교육청 자체 조사자료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디지털 카메라 등 등록 현황

공급사	제조사	카메라 바디	카메라 렌즈	플래시	계
(주)나라오름	SONY, Ricoh	26개	25개	3개	54개
오케이군(주)	Canon, Olympus, Sigma	24개	70개	3개	97개
(주)디지털청풍	Nikon	19개	39개	1개	59개

- 안 제5조에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및 제품구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 구매를 지양하는 문화조성 노력하도록 함

- 최근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에서의 제외 등 경제적 침략과 도발에 따라 국민의 반일감정이 깊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근거하지 않은 채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에게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상위법령에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